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5, pp.12~26(2002)

2002年 월드컵에 나타난 太極旗 패션에 關한 硏究

金希珍* · 簡鎬涉
同德女子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碩士過程*, 同德女子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副敎授

The Fashion of Korean National Flag at World Cup 2002

Kim, Hee-Jin* and Kan, Ho-Sup
Course of M.A., Dept. of Fashion Design, Dong Duk Women's Univ*.
Assoc.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 Duk Women's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idering about the fashion of Korean National Flag in the point of view of sociology and philosophy.

The contents are the philosophy of the Korean National Flag-'Taegk', the Great Absolute in Korean philosophy, and the historical fashion trend of The Korean National Flag.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Flag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The Korean National Flag contains 'Taegk' philosophy, the source of the dual principle 'Yn' and 'Yang'.
2. The design of 'Taegk' has been showed in Korean society traditionally.
3. The fashion of Korean National Flag dramatically is changed after Korea/Japan World cup 2002.
4. The Korean National Flag is the strong symbol of Korean society, affirmatively, same as the American National Flag.

Key words: fashion (유행), The Korean national flag(태극기), world cup(월드컵)

I. 서 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이다. 태극사상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와 우리민족의 정신을 이루어 왔고 전통적으로 태극은 우리 민족의 통일된 상징으로서 생활문화 전반에서 친숙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태극이 갖고 있는 느낌은 국기로서의 이미지, 즉 국가 상징물로서 존엄의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격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사용상의 제약이 많아 국민에게 거리감을 주고, 친근감을 느끼거나 쉽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1)]

태극기의 흰색바탕은 백의 민족의 순결성과,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韓民族의 민족성을 표상하고 태극은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발전하는 대자연의 영원한 진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창조와 발전을 의미하며, 4괘는 태극 속에서 음과 양이 질적변화와 양적성장의 선회운동을 거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길이길이 발전하고자 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집약, 표상하고 있다고 하겠다.[2)]

2002년 여름 월드컵은 한국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부르고 한국 사람들이 사상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태극기는 단순히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 의식이나 미의식의 원천으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을 형성케 한 정신사상의 표현으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의 얼굴이며 민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극사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태극기의 새로운 역할을 알아 보고자 한다.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보고, 태극문양이 전통문화 속에서 어떻게 디자인 응용되었으며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세대들이 집안 구석에만 놓여져 있던 태극기를 밖으로 끌어내어 아름다운 태극기 패션으로 이끌어내게 된 사회적 배경과 국가상징물로서 금기시하고 있던 태극기의 패션에 대한 도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2년 월드컵은 우리사회에 R세대, 혹은 W세대 출현을 예고하고 우리사회에 금기 시 되어오던 빨간(RED)색이 공식적으로 사회에 허용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나타난 태극기 패션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기 패션이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매번 형상화 되고 있는 성조기 패션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고 그 의미와 변천, 성조기 패션이 나타난 배경과 성조기 패션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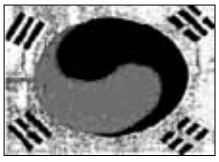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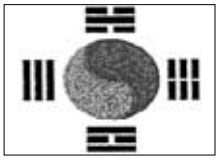
1. 태극기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 국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 된 것은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1881년 충청도 관찰사 이종원이 제출한 태극 팔괘의 도식에 의해 비로소 국기를 정하였으나 실제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한 것은 1882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인 박영효 일행이 일본으로 갔을 때 태극 도형과 4괘가 그려진 태극기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3]

지금까지 박 영효가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는 중국의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 것에 반발한 고종황제가 직접 독자적으로 구상하여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97년 발견한 1882년 10월2일자 도쿄 일간신문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실린 태극기 제작배경기사로 알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1882년 9월28일) 하나부사 공사와 함께 도쿄에 도착한 한 조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지금까지 조선에는 국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청국에서 온 馬建忠(마건충)이 조선의 국기는 청국을 모방해 삼각형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 쓰도록 했다. 본국은 황색을 사용하지만 조선은 동방에 해당하는 속방이요 청색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청색바탕을 사용할 것을 지도했으나 국왕(고종)은 이를 크게 분개하여 결단코 청국 용기(龍旗)를 모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사각형 옥색 바탕에 태극의 도를 적 청색으로 그리고 기의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의 역 괘를 붙여서 이제부터 조선의 국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4]

따라서 박영효는 1882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러 가던 중에 메이지마루호 선상에서 고종의 지시내용에 따라 태극기를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1883년 1월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 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 반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제작, 사용방법 등은 규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되어 온 태극기 문양을 통일시키기 위해 당시 문교부가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大韓民國國旗是正委員會)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49년 10월 15일 국기 제작법을 제정, 문교부 고시 제2호를 공포하였다. 1984년 2월 21일 국기의 제작, 게양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136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1996년 1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5182호), 국기의 연중 24시간 게양 및 국기 문양의 생활 용품 활용 제도를 도입했다.[5]

<표 1> 태극기(太極旗) 변천 5단계[6]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82년에 수신사 박영효일행이 일본을 방문할 때 고종황제로부터 허락받은 대로 배 안에서 만들었다. 괘의 모습은 현재의 태극기와 상당히 다르고 음방과 양방의 배치도 좌우 대칭되어 있다.
	1885년 고종황제가 당시 외무담당 미국인 데니 씨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시사신보가 발견되기 전까지 만해도 이 태극기가 최초의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있다
	1896년에 발행한 독립신문 제호에 도안 된 태극기.독립신문의 제호 태극기는 발행될 때마다 그 모양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했다
	1900년 파리 박람회 장소에 게양하였던 태극기. 특징으로는 유연한 곡선의 음방(청색)과 양방(홍색)이 좌우로 배치된 것과 4괘가 귀퉁이에 있지 않고 열 십자 방향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표한 대한민국 국기. 일제 36년. 동안 가장 많이 그려지고 사랑하였던 현재의 태극 도안대로 국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태극기의 유래

1)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 (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7]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 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 괘는 땅을, 감 괘는 달과 물 을, 이괘는 해와 불을 상징하며, 각각 정의, 풍요, 생명력, 지혜를 뜻 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8]

<표 2> 태극기의 의미[10]

흰색바탕	우리 백의 민족의 순결과 평화애호의 정신이 담겨져 있음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지 않은 전체 우주의 본원을 의미하며 하나의 원형을 취한 것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단일의 정신을 의미함	
	양, 양지, 존귀를 의미함	청, 홍 음양-창조의 정신 태극-우주본원의 음과 양 음과 양-상대성
	음, 그늘, 희망을 의미함	
	건(乾)	하늘과 봄 동쪽 그리고 인을 뜻함
	곤(坤)	땅과 여름 서쪽 그리고 의를 뜻함
	감(坎)	달과 겨울 북쪽 그리고 지를 뜻함
	리(離)	해와 가을 남쪽 그리고 예를 뜻함

2) 태극기의 의미

① 창조: 우주의 근본인 태극이 음과 양 두 가지의 기운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듯이, 우리민족의 창조성을 뜻함.

② 발전: 우리 민족은 언제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함.

③ 자유: 태극이론은 만물이 자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국민의 국민성을 뜻함.

④평등: 태극의 음과 양이 균등할 뿐만 아니라 4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등사상을 뜻함.

⑤무궁: 태극 무늬의 청 홍의 음양곡선은 끝없는 계속을 뜻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무궁무진 하게 이어질 것을 뜻함.[9]

3. 태극문양이 활용된 전통 디자인 사례

태극에 내포된 음양사상은 우리 나라의 고대 문화유적이나 생활풍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 고분의 벽화, 민속 설화, 의학에서의 병리생리 등을 음양으로 분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이러한 "음"과 "양"이란 상대성의 원만한 조화를 이상적 상태로 여겨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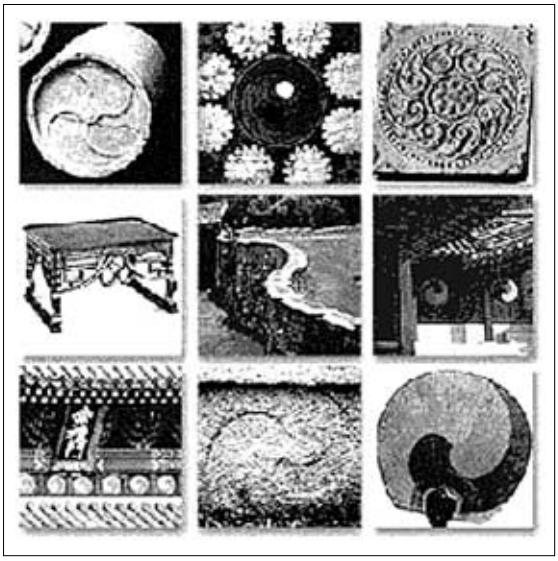
태극문양은 특히 조선 조에 이르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유교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선 조에 있어 태극이란 지고의 원리로 사고 전개의 기반이었으며 이를 인간의 내면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였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체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였고 여기서 주체성과 불멸성의 의미를 포착하였다.[11]

1) 공예 속에서의 태극 문양

태극 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공예품으로 목공예, 금속공예, 직물공예, 지 공예, 도자공예, 석공예, 가죽공예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형태는 2원 태극, 3원 태극, 4원 태극, 다원 태극 등과 같이 나타났으나 2원 태극이 가장 많고 색채는 천연색과 더불어 적색, 청색, 황색, 흑색, 백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

1. 반닫이 투각태함문 둥근 광두정(19세기 초)
2. 도제 (陶製) 떡살 (조선시대) - 흙으로 빚은 떡살
3. 도제떡살 (19세기) - 기쁨, 장수, 행복, 번영을 기원하는 글이 음양태극을 중심으로 새겨져 있다.

<그림 1> 떡살과 인장등에 나타난 태극 문양



<그림 2> 유형문화 속에서의 태극 문양

1. 백제시대의 기와 (수막새)
2. 채색꽃문
3. 백제 부여 규암면 외리 출토 무늬전돌
4. 조선시대의 소반
5. 화성 수원성의성벽에서 보는 태극곡선
6. 도산서원 전교당의 대문
7. 송례문 판문
8. 감은사지
9. 민간에서 널리 쓰인 부채[13]

다. 형태와 색채에 있어서 적색과 청색의 2원 태극과 삼원색의 3원 태극이 가장 많다. 배치 형태는 단독 문양이거나 다른 문양과 더불어 중심 문양, 대칭 문양, 혼합 문양 등으로 나타난다.[12]

2) 유형문화 속에서의 태극 문양(그림 2 참조)

3) 도자기에 있어서의 태극선

음을 대표하는 땅(地)의 흙을 주제로 하고 양을 대표하는 불(火)을 통하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우리의 도자기는 태극의 사상(자연과의 일체성,우주의 흐름과의 일체감)이 잘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선(線)자체도 태극의 선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림 3> 도자기에 있어서의 태극선

4) 의복에 있어서의 태극선

중국의 美는 형(形), 일본의 美는 색(色) 그리고 한국의 美는 선(線)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선에 있고 한국적 선의 유연성은 한복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한복의 선은 태극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선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거역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융통성과 우주의 진리, 태극의 사상까지도 수용하여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림 4> 의복에 있어서의 태극선[14]

III. 성조기와 성조기 패션

1. 성조기

1) 성조기의 뜻

성조기는 미합중국의 국기로서 'Stars and Stripes'라 불리는데, 미국의 국가(國歌) 또한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성조기의 특징은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州)의 수만큼 별이 있어서, 주가 증가할 때마다 별의 수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주의 증가가 결정되면 성급하게 새 국기의 디자인을 발표하는 시민도 있지만, 정식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기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심의 결정하고 다음해 독립기념일(7월 4일)에 공식 발표한다. 성조기의 탄생은 1777년으로 독립선언 당시의 13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13개의 줄과 13개의 별이 그려진 기였다. 당시는 별의 배열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원형(圓形)으로 배열한 것, 수열(數列)로 늘어놓은 것 등 그 종류도 다양하였으나, 1795년 버몬트 · 켄터키의 2주가 증가되면서 별만이 아니라 줄 또한 증가시키기로 결정되어 15개의 줄과 15개의 별이 그려진 국기로 변형되었으며, 그 후로는 주가 증가해도 줄은 그대로 두고 별만 더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조기는 현재까지 26번 변경되었으며, 최신의 변경은 1960년 하와이주(州)가 승격하였을 때로서 현재 별의 수는 50개이다.[15]

2) 성조기의 역사

북미대륙에 처음으로 서구스타일의 깃발이 휘날린 것은 콜럼버스가 처음 미 대륙을 발견할 당시 그의 배에 달고 들어온 사자가 그려진 스페인기와 이사벨여왕과 페르디난드왕을 상징하는 F, Y 두 글자가 그려진 기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온 수많은 탐험가들은 각기 자기들 제국의 깃발을 펄럭이며 미 대륙을 개척해 나갔다.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각 부대와 군함들은 각양각색의 깃발을 만들어 전장에 들고 나가 영국군과 맞섰다.

어떤 것은 흰 바탕에 푸른 소나무가 그려진 것도 있었고 'Don't tread on me'라고 쓰여진 뱀이 그려진 해군 깃발도 있었지만 13개 주가 모인 미국을 대표하는 깃발은 아직 없어 많은 혼돈을 일으켰다. 이에 미 독립군을 대표하는 기의 필요성을 느낀 당시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죠지 워싱턴장군에 의해 1776년 1월 독립군 공통의 색깔과 깃발을 공표하였다. 흰색과 빨간색 13개의 줄과 쪽 구석에 영국의 유니언 잭이 그려진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최초의 깃발이 태어난 것이다. 이 깃발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깃발 역할을 하다가 1777년 6월 14일 의회에서 유니언잭 대신 13개의 별과 13개의 줄을 그려넣은 기를 미국의 국기로 정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조기의 탄생이고 오늘날 국기의 날의 시작인 셈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된 성조기는 워싱턴이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봉재업을 하던 벳시 로스를 찾아가 제작을 부탁하여 실제로 펄럭이는 깃발로 태어나게 되었다. 원래 죠지 워싱턴이 의뢰했던 기의 별은 삼각형 두개를 포개놓은 육각별 이었으나(옛날 보안관 표시로 많이 쓰던 별 모양) 벳시 로

스가 정오 각형 별을 만드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오각형 별을 만드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오각형 별로 할 것을 제안하여 지금의 별 모양으로 하게 되었다. 1794년 1월 13일 버몬트 와 켄터키 주가 연방에 가입하자 성조기의 모양은 바뀌어야만 했다. 애초에 13개의 줄과 별이 각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자인된 성조기는 새로 연방에 가입한 두개 주를 더해 15개의 줄과 별로 새로 그려져 1795년 5월 1일 공식적인 성조기로 다시 태어나 1812년 스페인과의 전쟁 때에 미군진지에서 펄럭였다. 이후 미국이 계속 영토 확장을 하고 연방에 가입하는 주가 늘어나자 국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처음의 의도대로 줄과 별이 각 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면 별을 더 그려 넣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줄을 더 가늘게 그려 넣는 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여 1818년 줄을 다시 처음의 13개로 하여 미국 최초의 13개 주를 의미하고 새로운 주가 추가될 때 마다 별 하나씩을 추가 하기로 정하여 오늘날 50개 주에 해당하는 50개의 별이 그려지기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 국기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성조기가 태어나고도 근 1세기가 흐른 뒤의 일이다. 1885년 6월 14일 위스콘신주의 Fredonia 공립학교 선생이었던 B. J. Cigrand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인 국기의 날 행사를 열었다. 그 후 뉴욕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6월 14일이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자릴 잡아가기 시작하다가 1891년 6월 14일 성조기가 태어난 필라델피아의 벳시 로스의 집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고 1949년 8월 3일, 당시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에 의해 6월 14일이 연방 국기의 날로 공식 선포되었다. 국기의 날은 다른 기념일과 달리 공휴일은 아니다.[16]

3) 성조기의 변천

자그마치 27번이나 그 모양을 바꾼 성조기의 변천 과정을 보면 미국이 땅을 넓혀 주가 하나씩, 때로는 무더기로 추가 될 때마다 더해진 별을 어디다 어떻게 넣을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동그랗게도 해봤다가 별 모양으로도 해보고 네 줄로, 다섯줄로 계속 늘어나는 별들을 보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발전한 미국역사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17]

1795년
May 1, 1795 - July 3, 1818
별과 줄의 숫자 : 15개의 줄과 별
추가된 주 : Vermont, Kentucky

1836년 July 4, 1836 - July 3, 1837
별의 숫자 : 25개
추가된 주 : Arkansas

1851년
July 4, 1851 - July 3, 1858
별의 숫자 : 31개
추가된 주 : California

1865년
July 4, 1865 - July 3, 1867 별의 숫자 : 36개
추가된 주 : Nevada

1960년
July 4, 1960 - present
별의 숫자 : 50개
추가된 주 : Hawaii

<그림 5> 성조기의 변천

2. 성조기 패션이 나타나게 된 배경

1980년대 후반은 미국이 소위 쌍둥이적자로 지칭되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다. 사회 전체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들어 급기야 의회가 나서 국산품 애용의 불씨를 댕겼는데 이 운동은 행정부.업계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당시 등장한 것이 성조기였다. 업계가 자사 제품에 성조기를 새겨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종전에도 성조기 패션은 있었으나 국산품 애용운동으로 패션이 보다 다양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탱크 톱이나 바지 넥타이 등의 의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에 성조기 문장을 새겨 넣었다. 지난해 9·11 테러가 발생한 후 미국에서는

성조기가 물결 쳤다.국민들은 자동차에 성조기를 매달고 다녔고 집에도 내걸었으며 성조기 패션도 유행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표상 아래 한 마음으로 뭉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다짐이었다.[13] 성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매업체 들은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사건이후, 재고분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현상은 최근 미국 테러사건여파로 미국인들의 단합된 결속력과 애국심을 호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8]

3. 성조기 패션의 사례

지금 뉴욕은 온통 '애국심 고취' 슬로건의 영향을 받은 룩이 각종 디자이너 컬렉션과 쇼윈도를 뒤덮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성조기를 본 딴 핀과 리본 등의 악세서리에서부터 wearable한 일상복에 이르기까지 거리와 패션 매거진의 커버를 장식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성조기패턴의 백과 티셔츠가 최고 인기상품으로 등장하였으며 "I Love NY" 슬로건 역시 패션 아이템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성조기 프린트를 모티브로 한 옷으로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하고 위기를 이겨내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성조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기도 해 화제가 되었다. 밀라노, 파리. 세계적인 패션 쇼 장에서 선보인 성조기 프린트는 이제는 성조기 자체가 유행의 코드가 된 것이다.[19]

IV. 태극기 패션이 나타나게 된 배경

1. 사회적 배경

1) 새로운 세대의 등장

(1) R세대의 등장

월드컵을 계기로 386세대, N세대에 이어 R세대가 경제 · 사회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2년 6월. 전국은 붉은 색 물결로 넘실거렸다. w(월드컵)세대 또는 r(붉은 색)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인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R세대란 열광적이면서도 질서정연 한 축구 응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른바 '레드(Red) 신드롬'의 주역들이다. R세대를 태동 시킨 것은 월드컵이지만, 이들의 정서와 행동방식은 앞으로

<사진 1> 성조기 패션의 사례

국내 경제 및 사회에 중요한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정부나 기업 차원의 'R세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붉은 티셔츠와 태극기 패션, 화려한 body painting으로 대표되는 R세대는 뿌리나 연령상으론 N세대와 중복되지만, 성향은 크게 다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R세대의 특징을 자발적 공동체, 열광적 에너지, 개방적 세계관 등으로 규정했다. 386세대가 오프라인, N세대가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것에 비해, R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조직화했으면서도 활동공간을 오프 라인(길거리)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또 강한 집단주의 성향의 386세대, 철저한 개인주의로 무장된 N세대와는 달리 R세대는 길거리 단체응원에서 드러나듯 개성이 강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386세대나 N세대가 기성 세대와 갈등적이었지만, R세대는 세대를 초월하는 유대의식을 보여줬다.

국가·민족관 역시 386세대는 폐쇄적 애국주의에 가까웠고 N세대는 국가나 민족 자체에 무관 심했던 반면, R세대는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강한 애국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히딩크감독에 열광하고 외국팀 응원을 자처할 만큼 개방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가진 R세대가 경제·사회의 중심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도 생산, 디자인, 판매 등에서 화려함과 자유분방함으로 무장된 R세대의 성향과 감수성을 잡기 위한 마케팅 방안수립에 나섰다.[20]

(2) IT 세대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대표적인 오프라인 장소인 거리로 나와 이처럼 똘똘 뭉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라인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새롭게 다가온 인터넷 가상공간에 빠져 나온 이들은 이곳이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 공간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곳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월드컵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분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이버 가상공간의 진정한 실체를 인식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적절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정보기술(IT)신인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T신인류는 명백히 인터넷을 처음 접하고 이를 생활의 모두로 받아들였던 n세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최소한 n세대와 함께 인터넷을 포함한 IT문명을 충분히 접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IT신인류는 연령적으로 기존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기존 10대 위주의 X세대, n세대 그리고 30대의 386세대와 비교해서 연령의 폭이 넓다. 먼저 IT문명을 최대한 영유하면서, 가상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개방성과 공동체 의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온라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공동체적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한다.

IT신인류는 또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거리응원에 나선 사람들처럼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뛰쳐나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n세대들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으며 또한 이를 오프라인상에서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나름대로의 개성표현으로 연결된다. 20세기 말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로 개성상실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IT신인류는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가운데 그들만의 개성을 찾고 표출할 줄 안다. IT신인류의 여가관도 기존 세대들과는 큰 차별성을 띤다. IT신인류는 일과 여과를 하나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려 한다. 그래서 비록 4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는 것이다.

IT신인류는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n세대가 새로운 문명인 인터넷이라는 정보창고에서 모든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면 IT신인류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찾아 활용한다. 또한 n세대들이 인터넷상에서 목적지 없는 서핑을 해왔다면 IT신인류는 자신이 갈 곳을 정해놓고 항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자신이 찾을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전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신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n세대가 단순한 관심 속에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IT신인류는 자신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유로 한 무조건적인 비판도 하지 않는다. 처음 인터넷을 접한 세대는 익명성이라는 특혜를 누리며 사이버 공간에서 비판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IT신인류는 익명성이 하나의 특혜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하듯이 온라인에서 충분한 논리적 바탕을 두고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월드컵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이 4강전에서 독일에게 패했을 때와 준결승전에서 터키에게 졌을 때 모두 한국이 승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수로 양팀 선수들을, 그리고 자신들을 격려했다. 과거 패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일삼았던 부정적인 시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21]

2) 새로운 세대의 패션 변화

(1) 배꼽티의 등장

90년대 초에 일명 '배꼽티'가 유행했다. 패션리더들을 따라 '용기 있는' 여성들은 너도 나도 부드러운 배를 드러냈다. 단연 사회의 반향이 즉각 돌아왔다. 유림은 이것이 전통을 깨부수는 천박한 옷차림이라 경고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배꼽티 차림의 여성을 풍기문란 혐의로 입건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배꼽을 드러낸 옷차림이 성(性)적 방종 혹은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논란도 사회전반을 떠들썩하게 했다. 물론 패션계의 반박도 있었다. 어느 디자이너는 "팔은 드러내도 되는데, 배꼽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여성의 배꼽에 대해 갖고 있는 남성들의 은밀한 편견이 더 문제 아닌가"하는 반문으로 들렸다. 해변에서, 길거리에서 윗옷을 벗어 젖힌 남성들의 배꼽과 여성의 배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게 여성들의 항의였다. 어쨌든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배꼽티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배꼽티가 유행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이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우려처럼 배꼽티가 성범죄를 부추겼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꼽티는 '선택적 스타일'로 남았을 뿐이다.[22]

(2) 염색머리

90년대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것은 머리 염색이다. 소위 '절가방'이라 불리는 중국집 배달소년 들에서 시작된, 일종의 하위문화인 머리염색이 청소년들 사이에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우리는 또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검은 머리라는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서양문물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성세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칙개정까지 요구하며 머리염색의 자유를 갈구했다. 많은 초 중고생들이 방학과 동시에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였고, 개학전날이면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가기도 했다.

2. 레드(red)콤플렉스의 극복

W-세대들, 또는 R-세대로 불리는 신인류에 의해 주도된 Red 열풍은, 한국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중심 계층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뜨거운 열정의 상징으로 붉은 색 T-shirt와 두건 등 붉은 색을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공산당, 간첩, 빨갱이' 등 폭력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이었던 'Red Complex'를 타파하고 태극기를 패션에 적극 활용, 지나친 엄숙 주의를 극복하는 등 우리사회에 엄청난 사회, 문화적 변혁을 가져왔다.

젊음을 원동력 삼아 자발적으로 모인 '2O8세대'(20대, 2000년대 학번, 80년대 출생자)는 딱딱하고 비장하게만 느껴졌던 태극기와 레드 콤플렉스 탓에 금기시했던 붉은 색을 아무 거리낌없이 길거리에 내놓게 되었다. 이들은 '태극기 패션', '페이스 페인팅' 등 파격과 일탈의 문화 코드를 유행시켰고 결국은 'W세대라는 신인류로 거듭나게 되었다.

1) '즐거움'의 공유 수단

남과 같이 입고 있는 'Red' 티셔츠는 응원과 함께 하나의 축제로서 '즐거움'을 위한 도구였다.

붉은 색이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파격과 일탈을 넘어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의미에서 붉은 색은 청바지처럼 하나의 패션이자 일시적 유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지니게 되었다.

2) 긍정적, 적극적 방향으로의 국가 이미지 변화

월드컵을 계기로 붉은 색이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색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흰색'의 이미지로 한국은 수동적이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것에서, 월드컵이후 세계에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나라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월드컵이후 관광객이 13% 증가하였고, 분단과 노사갈등의 나라에서 축구,관광의 나라로 변화하였다.

V. 월드컵과 월드컵 후에 나타나는 태극기 패션

1. 태극기 패션

1) 태극기 패션의 의미

태극기 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결속되었다.

태극기의 일상화를 통하여 경외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수평적이면서 민주적인 권위의 창출 현상이 나타나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양식의 확산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문화상품의 가능성 확대 되어 '왠지

<사진 2> 태극기의 의복화

<사진 3> 여성들의 태극기 패션[24]

촌스럽다' 는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면서 미국 성조기나 영국 유니언 잭처럼 하나의 디자인 소재로서 문화 상품에 응용될 가능성 나타내었다. 또한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하나의 브랜드 캐릭터 상품으로 부각되었다.[23]

2) 태극기 패션 현상

(1) 엄숙주의의 타파

월드컵 응원 열풍과 함께,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흐르고 있던 엄숙주의와 금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적 자부심과 자존심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전 국민적 정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의 이미지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에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다이나믹 코리아' 로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

(2) 태극기의 의복화

여성 응원단의 경우 짧은 탱크 탑에 맞추어 배 부분에 그리는 스타일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대대적인 응원 참여도 태극기 패션을 다양하게 활용한 현상에 기여하고 붉은 티셔츠에 코디 시켜 랩 스커트로 둘러 입거나, 바지형태로 응용. 남성의 경우 바지로도 응용되었다. 원피스로의 활용도 많이 사용되어진 방법이고 할터 탑의 원피스 형태가 주로 등장한 스타일로 그 외 그래픽적으로 응용한 방법도 눈에 띄었다.

두건 또는 머플러, 망또 스타일로 손쉽게 둘러쓰거나 입는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붉은색 응원 티셔츠의 착용으로 일반적이고 단순하게 '붉은 색' 을 착용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창의성을 내보일 수 있는 개성적인 티셔츠로의 변형을 통한 착용 법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네크라인의 변형과 탱크 탑으로 길이 변형하고 디테일도 많이 추가 변경하여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3) 태극기의 소품화

스카프, 스커트, 두건, 망토 등 각종 패션 액세서리로 변화되어 거리응원전에서 응원 매체로 사용되고 의류뿐 아니라, 패션 문신, 응원용 두건, 응원용 나팔, 태극 무늬 핸드폰 액세서리, 또는 가방에 사용하는 태극기 장식 등이 유행, 상품화로 이루어졌다.

Face Painting, Body Painting의 주요한 소재로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Painting재료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얼굴 또는 신체 일부분에 작은 크기로 그리거나 전체에 대담하게 그려내는 방법도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붉은색 실과 파란색 실을 이용해 머리를 양 갈래로 땋은 여성과 축구공처럼 오각형 무늬 부분들만 길이 1cm 정도 남긴 채 나머지는 빡빡 밀어버린 남성들도 눈에 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는 10일 미국 전 때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도 붕대를 맨 채 투혼을 발휘한 황선홍 선수의 정신을 살리자는 의미. 이들은 꼭 오른쪽 눈 부위에 피가 난 것처럼 붉은색을 칠한다.

기발한 소품들도 등장해 보는 이를 즐겁게 만든다. 빨간색 고무장갑을 닭 벼슬처럼 머리에 뒤집어쓰는가 하면 축구공을 자른 뒤 붉은색으로 칠을 하고 장식용 소뿔을 양쪽에 붙여 머리에 쓰고 다니기도 한다.[25]

<사진 4> 소품 응용 태극기패션

<사진 5> 수영복에 응용

<사진 6> 태극이용 FACE PAINTING

2. 법 제정 변경

1) 개정이유

2002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범국민적인 국기(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그림.사진 등을 말한다)을 각종 물품등에 디자인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그림·사진 등을 말한다)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월드컵 대회 동안 길거리응원에서 선보인 태극기 치마, 태극기 두건, 태극기 탱크 톱 등 '태극기 패션'이 등장하는 등 태극기가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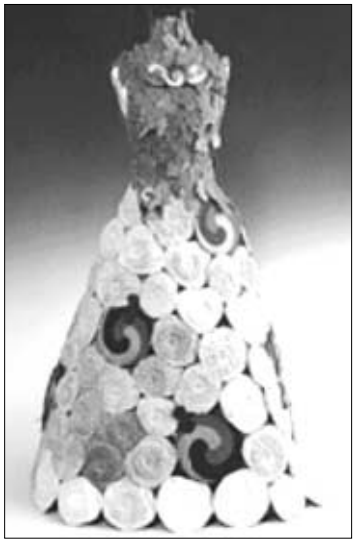
행정자치부는 이번 월드컵 기간 '태극기 패션'을 계기로 국기문양 활용을 포함해 국기관리 등에 대한 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6]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에 대해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태극기로 치마나 두건을 만드는 등 의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기문양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활용범위도 확대하는 등 국기 자체의 활용규정 문구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의전담당 관계자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태극기 패션은 국기의 존엄성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 문제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월드컵이후에 나타난 태극기 패션

현대의 패션은 이미 옷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고, 이제

<사진7> 김혜경, 미니멀리즘



<사진 8> 정연자, 긴인연

<사진 9> 전용욱, 숨결[27]

패션은 일상생활과 연관된 장식적,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태극'을 주제로 한국패션문화협회에서 주최하여 열린 '태극 2002 FASHION ART EXIHIBITION'이 열렸다. '태극'은 그 동안 국민들 의식 속 깊숙이 잠재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 4강 신화로 이러한 의식이 새롭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외부로 다양하게 폭발적 에너지와 더불어 표출됨을 경험하였다.

국가 상징의 표제로 태극은 엄격하고 숭고함만을 표출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조심스럽게 옷감무늬,상자와 색지,장신구 일부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4강 신화창조 과정에서 얼굴화장,보디페인팅,소형과 더불어 대형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담한 변신을 통하여 우리 애국심과 전통적 상징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모두에게 다가온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월드컵을 통해 급부상 된 태극의 좋은 이미지에 대해 발 빠른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고 이미 태극기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 상태이다. 여유로움과 미를 즐길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삶의 근간이 되어 왔던 우리의 태극, 그러나 그 동안 경외의 대상으로서 등한시 해왔던 태극 문양, 이는 분명 우리 나라의 상징이기에 늦었지만 우리가 아끼고 개발시켜야 할 몫이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한다. 태극은 우주 생성의 첫 시발점이며 우리는 그 축에 있다. 우리는 세계 기운의 중심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북돋운다는 대승적 개념의 태극 상징을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조상의 슬기를 배워보아야 할것이다.

VI. 결 론

국기는 그 나라를 홍보하고 상징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혼과 민족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태극기는 참으로 과학적이고 섬세하면서도 단조로움과 균형 미를 고루 갖춘 국기 이다. 태극의 문양은 참으로 아름답고 과학적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재를 비롯하여 도자기, 의복, 건축에 활용되어 우리만의 특유한 디자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태극기가 변해온 역사를 사진을 통해서 봄으로써 태극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보기도 하였다. 창조성, 자주성, 자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즉,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성과 음과 양의 균등, 평등 사상이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태극기의 숭고함과 우수함을 후대에까지 계승, 보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첫째, 태극 문양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태극 문양은 빨강, 파랑, 검정의 강한 대비를 이루는 Color나 형태로 지금까지는 다양한 변형과 패션에의 적용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월드컵을 계기로 권위의 상징, 경외의 대상에서 친근한 대상으로 변한, 태극기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한국적인 이미지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상품화에 적용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을 보았다.

둘째, 태극기 패션의 관심 증대로 정부가 '태극기 관리 규정'의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태극기의 상품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강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문화디자인 상품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여, 태극 형태의 변형과 단순화 등의 디자인 개발작업을 통하여 태극기 문양을 유니언 잭이나 성조기와 같은 디자인 소재로 승화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28]

셋째, 길거리 응원 물결의 공동체 의식을 펼쳐보인 장에서도 개성 넘치는 페이스 페인팅, 태극기와 붉은 셔츠로 연출해보인 '나만의 스타일'을 일상생활의 개성과 특색으로 이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여 한 시기의 열풍이 아닌 앞으로의 세대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주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장르로 부각되는 예술의상 영역을 통해 보다 신선한 패션 이미지를 창출하고, 세계적이면서도 우리의 것을 잃지 않는 패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패션 영역의 확대와 사회적 디자인 마인드 전환, 고부가가치 디자인 육성 및 해외에 한국 고유 디자인 진

출에 기여할 것과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회와 함께 또한 태극문양과 패션이 만나는 다양한 모습의 디자인과 발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國家의 絶對象徵 表象으로서 太極旗에 關한 硏究/韓鍾印, 발행사항 서울: 弘益大學校, 1992.
2) 태극기의 정체/김상섭/동아시아/2001. 10.
3) 올바른 태극기 해설/백운섭/보경문화사/2000. 08.
4) 태극기 이야기/문룡호/미술문화사/2000. 12.
5) 세계의 국기와 국가/한국어린이 교육연구원/1999. 11.
6) 태극기에 담겨있는 새 천년 한국의 운/백운곡/생각하는 백성/1999. 07.
7) 태극기와 민족정기/편집부/태극기 광복 추진위원회
8) 세계의 국기/장인규/서문당/1998. 05.
9) 세계의 국기/편집부/신서출판사.
10) 太極旗의 制定背景과 法哲學的意義 및 南北韓統一國旗 制定案 小考: 國旗에 관한 比較憲法的考察과 관련하여/崔創東/釜山外國語大學法學硏究所, 1988.
11) 알려지지 않은 국기 이야기 /편집부/창과 창
12) http://my.netian 스포츠.com/-jeong 313/x9.htm
13) http://myhome.netsgo.com/mtwin/x-japan/
14) http://cis.yeungnam.ac.kr/cis/co1-11/co1-1132.htm
15) 태극기 이야기/문룡호 /미술문화/2000. 03. 21.
16) 태극기에는 소리가 있다/김용직/문경출판사/1994. 05. 21.
17) 2002월드컵에 나타난 사회적・문화적 변화.
18) 태극기 정체/김상섭/2001. 10. 01.
19) The flag book of the u.states/whitney smith.
20) http://msyun.woorizip.com.
21) 국민일보
22) 삼성경제 연구소
23) 삼성디자인 넷
24) 태극기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에 관한 연구/허윤, 발행사항 대구: 啓明大學校, 1999.
25) 일간스포츠
26) 전자신문
27) '태극 2002 패션 아트 전시회'
28) 포스터에 활용된 태극기의 시각적 표현 연구/金祥雅 발행사항 대구: 啓明大學校, 2001.

(2002년 10월 7일 접수, 2002년 11월 21일 채택)